

태풍 덕에... 광주·전남 농업용수 걱정 덜었다

저수율 나주 29%·영암 58.9% 등 전국 평균도 50% 웃돌아 식수난 고통 전남 도서지역 저수율 급증...농작물 해갈 도움

태풍 솔릭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을 겪던 광주·전남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수율이 평년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최악'의 수준을 벗어난 만큼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97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51.2%로 태풍이 북상하기 전인 지난 22일(47.9%)보다 3.3%포인트 상승해 가가스로 50%를 회복했

다.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업용수를 넘어 식수부족 문제까지 겹쳤던 전남 지역의 평균저수율도 22일 39.1%에서 이날 45.9%로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년저수율 70.9%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지만 이번 비로 평년 대비 현재 저수율이 50~60%일 때 발령하는 '경계' 단계에서 60~70%일 때 발령하는 '주의' 단계로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저수율이 25.3%에 머물며 가장 심각한 가뭄을 보였던 나주지역은 29%로 상승했고, 장성

은 42.7%에서 44.2%로 올랐다. 광주 역시 42.1%에서 48.2%까지 오르며 저수율이 회복세에 들어갔고, 무안 41.9%→53.6%, 강진 43.5%→56.2%, 영암 40.7%→58.9% 등 저수율이 증가하면서 가뭄 걱정을 덜게 됐다.

특히,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식수조차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도서지역의 저수율이 크게 증가했다. 태풍이 전남 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해갈에 큰 도움을 주면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도지역 저수율은 81.9% 수준을 기록하면서 태풍이 오기 전 37.7%에서 무려 44.2%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 지역 역시 48.1%에서 71.1%로 23%포인트나 올랐다.

신안의 경우에는 태풍 이전 26%이던 농업

용수 저수율이 57%로 오른데다, 생수를 공급받으며 버티었던 섬 주민 식수 공급원인 수원지 저수율도 10% 이상 오른 92%까지 증가하는 등 이번 태풍이 지역 농작물 해갈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날 현재 내리고 있는 비가 27일까지 이어지며 광주와 전남지역에 30~8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율 역시 상당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에도 산과 계곡 등에서 빗물이 내려오게 되면 이번 주까지는 수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며 "내년도 저수량 확보와 올해 영농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가축 질병·사료작물 피해 예방 관리 요령 발표

농진청, 축사 소독 등 농가 협조 당부

농촌진흥청은 26일 태풍이 지나간 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령을 발표하고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태풍이 지나간 뒤 가축의 질병 발생이나 사료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관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탓에 수인성 질병이나 사료에 곰팡이·세균 증식이 우려된다. 물에 잠겼던 축사는 깨끗한 물로 청소한 뒤 소독하며, 물통도 깨끗이 씻어 소독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각종 기구들도 햇빛에 말려 소독이 필요하다.

또 덥고 습할 때 가축은 식욕을 잃기 때문에 신선한 아침이나 저녁 고열량 사료와 질 좋은 풀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광물질 사료도 따로 주는 것이 좋으며,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축사는 충분히 환기해 적정 습도(40%~70%)를 유지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축사 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이고, 오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퇴비사와 분뇨처리장 등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대가 낮은 사료작물 재배지나 초지가 물에 잠겼을 때는 바로 배수로부터 만들어 물을 빼내고, 수확을 앞두고 쓰러진 여름 사료작물은 바로 수확하는 게 좋다. 목초도 비가 그치면 바로 잘라 담근척이로 만든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땅이 질고 습한 초지는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피해야 목초나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다"며 "태풍이 지나간 뒤 보다 섬세하고 철저한 관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25일 휴일을 반납하고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지역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가 복구작업을 도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전남본부, 태풍 피해 과수농가 긴급 인력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25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 인력지원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농협곡성군지부, 육과농협 등에서 임직원 50여명은 휴일을 반납하고 낙과 피해를 입

은 지역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가 피해복구를 도왔다.

박태선 본부장은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인력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 필기시험 11월 24일 치뤄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이란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기술·지식, 경영능력, 소양을 갖추고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할 수 있는 농업인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총 180명의 농업마이스터가 배출돼 현장 실습 교육,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 위원 등에서 활약 중이다.

시험은 11월 필기시험 이후 내년 3월 역량평가와 내년 6월 현장 심사 등 3단계 검증 절차로 진행된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 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中, 북·미 협상 진전 기대
반도체·IT 대형주 반등 가능성
외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지속
대북관련·제약바이오주 대응 적절

미국과 중국이 지난 23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2개월만에 재개된 차관금 회담에서 상호간 입장만을 확인하고 마무리되는 등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졌다.

하지만 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절차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다.

미국 S&P500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05% 상승해 2293.2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외국인(+812억원)과 기관(+1218억원)이 쌍끌이 순매수하며 3.36% 상승해 798.23pt로 800선에 근접했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건설 등 남북경협주 약진이 지속됐고 제약·바이오도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주 후반에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 일부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허용했다는 소식으로 화장품·호텔·게임 등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 말(9월 3일 적용)로 예정된 중국 A주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EM(신중국) 지수 2차 추가변인(2.5%)에 따른 국내지수 영향은 중립적이라 판단되지만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현재 비중은 14.1%에서 14.0%로 0.061% 감소하는데 8월말 MSCI EM 지수 시가총액을 감안할 경우 최대 1350억원이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부터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어 이탈규모 및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신중국 증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로드맵 합의, 미 연준 통화긴축 온건화, 미 달러가치 하락반전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신중국 증시가 상승하며 지난주 국내증시도 반등해 코스피지수는 7월 이후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2320포인트에 근접하고 코스닥지수도 800선에 근접해 추가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연기금이 로스쿨규정에 따른 불량으로 추정되는 매도세가 수급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7월 이후 2300선에서 증시여건을 비교해본다면 현재는 개인의 신용 매물부담이 크게 완화됐고 달러강세 및 경기전망도 유보적인 상황이다. 강한 지수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하고 북미간 북핵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대형주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최대피해주인 한국반도체와 IT업종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루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난주 반등을 주도했던 대북관련주와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의 순매매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관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